

조선
우록
풍견지이

서울
신문
관
발
행

Inches 1 2 3 4 5 6 7 8

Centimetres

KODAK Color Control Patches

©Eastman Kodak Company, 1977



Blue Cyan Green Yellow Red Magenta White Brown Black

옥루몽 권지이 목록

玉樓夢卷之二目錄

데십오회 : : : : : (一)

홍흔달이련화봉에들을보라보고
손야채밤에티을동에드러가다
紅渾脫望月蓮花峯
孫夜叉夜入太乙洞

데십륙회 : : : : : (一四)

축융왕이환술로신장을놀이
홍스매진을변하야만진을파하다
祝融王幻術降神將
紅司馬變陣破蠻兵

데십칠회 : : : : : (二五)

일지련이단괴로제장과싸호고
축융왕이의를감동하야명진에항복하다
一枝蓮單騎鬪諸將
祝融王感義降明陣

데십팔회 : : : : : (二六)

홍스매갈집허딩즈를취하
양원쉬첩서를보하야남적을평하다
紅司馬杖劍取頂子
楊元帥報捷平南賊

데십구회 : : : : : (四九)

로랑이의를감동하야황부를육하고
가인이단거로강주를향하다

老娘感義辱黃婦
佳人單車向江州

데이십회

출월이변복하야산화암에가고
우격이취하야십자가에지나다

...

春月變服散花庵
牛轍醉過十字街

데이십일회

적한을맛나마달이사름을구하고
도판에의탁하야선랑이안신하다

...

逢賊漢馬達救人
托道觀仙娘安身

데이십이회

양도독이술을가져자고를듯고
혼원쉬괴운을타호구를보내다

...

楊都督携酒聽鷓鴣
紅元帥望氣送狐裘

데이십삼회

보살이작법하야마왕을놀이고
홍랑이단괴로도독을구원하다

...

菩薩作法降魔王
紅娘單騎救都督

데이십사회

남편도적을평당하고도독이런병을돌니고
도판에드러가원쉬육인을놀내다

...

平南賊都督回天兵
入道觀元帥驚玉人

데이십오회

군공을의론하야도독이왕을봉하고
싱향을알외야동홍이자최를말하다

...

論軍功都督封王
奏笙簧董洪發跡

데이십륙회

례악을말하야로군이나라를그릇치고
충분이격동하야연왕이상소를올니다

...

設禮樂盧均誤國
激忠憤燕王上疏

데이십칠회

의봉당에런지풍류를드르시고
황교덤에란성이중독하다

...

儀鳳亭天子聽樂
荒郊店鸞城中毒

데이십팔회

효료되에연왕이갑화를맞는고

...

草料堆燕王遭劫火

운남덤에란성이즈기를스로잡다

옥련봉그림
강남홍화상

玉蓮峯圖
江南紅像

雲南店鸞城擒刺客

옥루몽권지이 목록 종



다보라비를 들에 봉화련이 탈 혼 혼

江南紅



강 남 홍

옥루몽 권지이

玉樓夢卷之二

데심오회

홍흔달이련화봉에들을바라고
손야채밤에티을동에드러가다

紅渾脫望月蓮花峯
孫夜叉夜入太乙洞

각설양원쉬홍랑을보내고즉시소스마를장중으로불너만히말하야왈만장홍흔달
은본디중국사름이라나락의회하됨을붓그러나에게도라을뜻이잇느니장군은필마
단괴로이제련화봉아래간즉흔달이반드시거기서월석을구경하며방황할거시니장
군은괴를보아의리로달녀다리고오라소스매저왈홍흔달은엇더흔장쉬니잇
가원쉬쇼왈향일쌍검을춤추어싸호든만장이라소스매대경왕원쉬만일그장슈를엇
으신즉남만을평당하거어렵지아니하려니와쇼장이그위인을일즉봄에달녀향복
홀재아닐가하느이다원쉬쇼왈홍흔달은의괴잇는장쉬라귀순할뜻이잇슴을내아노
니장군은의심치말라소스매응락하고가며성각하되내전일진상에그만장이원슈와
접전할식지조를다하지어님을슈상이보앗더니엇지심지상통하야서로약속함이잇

는 줄알았스리 오슈연이나 그 장슈의 겹술은 내이 때것 간담이 서늘하니 경술이 가지 못
 하리라 하고 단병을 몸에 지니고 필마 단기로 려 화봉을 향하야 가니라 초시홍랑이 괴실
 에 도라와 손삼랑을 대하야 명진에 가원슈를 보고 여초를 말하호욱덕과 형장을
 거두어 손삼랑을 다리고 려 화봉에 이르러 완월하며 방황하더니 소스매원슈의 명을 받
 아 초초단기로 려 화봉을 향하야 올시 반류잔월은 서산에 거의지고 동던서식은 원춘에
 회미흐디 멀니브라보니 혼장쉬일기로 줄을 다리고 려 화봉에 비회하며 완월하거늘 소
 스매차경차회하야 심중에 헤오대이 필연홍혼탈이라 하고 압히나아가 장을 알방금량
 진이 상디하야 장슈되재한가치 못하거늘 장군은 엇지 음풍룡월하는 서성의 괴미잇는
 노홍혼탈이 쌍검을 안고 단레왈그디는 엇더하사름이 노소스매왈복은 명진척후하는
 장쉬라 장군의 한가하신평척를 함양하야 병복을 파탈하고 왓스니 넷적의 양숙조와 두
 원개는 몸이 대장이 되얏스나 경구완디로 역국을 심치아니하얏스니 이제 장군이 능
 히고 장유풍이잇슬쇼나 혼탈이 쇼왈대장뷔세상에나매지심하는 재잇신죽엇지죽기
 를저허하리오그디임의 허심하고 후의로차즈니 내또 혼방심하고 무간이 말하리라 내
 비록조감이 업스나그디거동을 보고말슴을 드르니 양숙조의 의로움이 아니라 괴철의
 삼존설을조랑코저함이로다 소스매쇼왈괴철은 불과 망령된변이라 무단이 회음후를
 달니여 평성을 그릇치니 복의 취하지안는 비라 복이이제이조치음은 산동의 임쇼공을
 효측하야 음이니 장군이 엇지리 쇼경의 무쌍지지로되게 죄임함을 감슈하고 전화위복

李少卿

淮陰侯

蒯徹

杜元凱

羊叔子

周公 孟嘗 平原

함을싱각지아니하는 노홍혼탈이 려쇼왈내어제진상에서 약원슈를 볼애년쇼괴에 혼장
 쉬라 엇지 사름을알아 지조를식괴치아니리오내출하리 산중에 종적을금초아 평성을
 보낼지언딩모음모르는자의 회해되자아니라 소스매탄왈양원슈는 장군을아나 장
 군은 양원슈를모르는도다 복이실로원슈의 명으로음이니 원쉬복을보내며말하되홍
 장군은의괴잇는 장쉬라 만일나를조존내맛당히지괴로허심하야 평성을사괴리라
 하니 엇지 장군을식괴하리오 양원쉬비록나하어리나웅지대략은말하지말고제장을
 레디함괴인지지름스랑함이실로네훈날쥬공의도포악발함을스모하시니 엇지 혼갓땡상
 평원의하사지풍이잇슬스름이리오 혼탈이 츠언을듯고머리를숙이고 침음량구에 혼
 연쌍검을들어 바회를침애바회두조각에나거늘 칼을잡고나서며왈대장뷔일을결
 단함이 맛망하야 바회조리라하고 소스매를보아왈장군은나를위하야 쇼개하라스
 스매대회하야 홍괴로줄을다리고 본진에도라와 원문밭게세우고몬져드러와원슈씨
 고 혼대원쉬대회왈내홍혼탈의 위인을잡간보니 교양당돌흔재니심상향장으로디접
 지 못하리라하고 즉시용복을벗고학창의를넙고 당건을쓰고 원문밭과나아가 혼혼탈
 의 손을잡고 쇼왈스히보다하나 일련지하에잇고 구쥬크다하나 룽합지년에쳐하얏거
 늘복의안목이 좁아영웅호걸을동서에성장하연지 십년에이곳에와이곳치맛나니 엇
 지참괴치아니리오 노홍혼탈이 양연디왈만장향줄이 엇지 지괴를말하리오마는 이제 원
 슈의하사지풍을보오니 쇼장의 칼을잡고서로쫓는자 죄거의 후회업슬가하는이다인

하야 서로 손을 잡고 진중에 드러올 쉬홍호탈이 그로 졸을 마르쳐와 더로 장은 쇼장의 심
복이라 일흠은 손야 채오 약간 창법을 아오니 복망회하에 도용호 쇼서원쉬허하더라던
명에원쉬제장을 모으고 홍호탈을 마르쳐와 홍장군은 본디 중국사람으로 남방에류락
하얏더니 이제도로던조명장이 되얏스니 금일풍진에동고할사람이라 각각한편지례
를베풀라선봉장되던풍이 웃고나와시례와로장이 추호도채를밋고 두번호슈를거우
다가비록싱활하신은덕을님엇스나 갑옷우에칼흔척이성흔곳이업고서리털마드흔
머리지금서지업는듯하여이 다일죄대쇼하니 소스매웃고 혼탈의찬칼을문지며와장
군의보검이모도몇자로를차시료 혼탈을다만들을찾는이다 소스매쇼와만일그러흔
죽향일진상에그리미만하야천벽이나되니잇가 내지금서지모골이송연하고정신이
현황하야다시이칼을더흠애오히려눈이미란흠을쳐듯지못하는이다 모다대쇼하더
라원쉬소유경으로좌스마청통장군을삼고홍호탈로우스마빅호장군을삼고손야차
로전부돌적장을삼으니 츠시양원쉬홍락을군중에듬애흔어진인연을다시으니깃
불뿐아니라 낮이면군무의를론하고밤이면각회를위로하야일시좌우에떠나지아니
하나홍의괴경민첩흠으로승접하하야죽적을탄로치아남애제장삼군이그녀즈임
을아는재업더라차설나탁이익일청신에각실에와홍의안부를문후하니적연이동정
이업는지라슈문줄이고와장군이미명에슈하로졸을다리고동구로나가시나감히
못지못하니이다나탁이그다라남을알고처음은어히업서락담하더니다시대로와내

雲南國
祝融洞
祝融王

더를더접흠이극진하거늘이제불고이거하니이논과인을하시흠이라내맛당히빅운
동에가도스를죽이고타쳐에구원을청하야이설치를하리라장하에일인이응성왈쇼
장이일인을천거하리니운람국축융동에일위대왕이잇스니련하에무쌍흔영웅이오
왕이또일리쇼괴잇서쌍창을써애만부부당지용이잇스나다만축융왕이람이만아래
물이적은죽줄겨오지아닐가하는이다나탁이대회하야즉시만포이빅필과명쥬이빅
미와금은채단을긋초아축융동을차자갈시만장털목랍아발도량장을불너약속와과
인이회환하거전은문을돈둔히닷고명원쉬비록나르러도전하나경이히출전치말라
량장이응락하니라일일은홍스매원쉬씩고와만왕나탁이련일동정이업스니이논청
병하라감이라츠시를루래을동을취흠이도홀가하는이다원쉬와만중동학이중국성
지와다르니만일직히고저흔죽일부당관에만부막리라장군은무슴묘게잇는노홍스
매마만히고와첩이만진제장을봄애씩잇는재업서그속임이쉬울지니맛당히여츠여
츠흠이도홀가하는이다원쉬칭선와내오래군무에피곤하니량은나를더신하야경륜
과지조를앗기지말라즈금으로양원쉬육장에놓히누어편안홀을누리고저하노라홍
스매미쇼하고이날밤손야차를장중으로불너마만히약속하니라익일평명에원쉬제
장을모아군중일을상의할시홍스매원슈씩고와남만의련성이간교하야반복이무상
하니밋을길이업는지라군중에싱금흔만병을오래둔죽도로혀신괴루설할가하오니
일변진전에다버혀화근을삼음이을을가하는이다손야채간와병서에하얏스되향차

는 불살이라 하얏거늘 이제 만일 다 버린즉 이노 투항하노길을 막아 적병의 일심을 도음
이로 소이다 홍스매로 왈 내료함함이 잇거늘로 장이엇지 감히 장담을하노 손야 채왈
스마의료함심을 비록 알지 못하나 만종벽성이또 혼우리성련조의적조창성이라엇
지 무단이 살륙을 일삼으리 오홍스매대로 왈 네만병을이긋치고 호호니 반드시나락을
위하야 반심을 둠이라 내맛당히 만병과긋치버히리라 손야 채또 혼대로 왈 내본디 산중
에 숨어잇든사름이라 장군과더부러 만왕을 구하라 왓스나엇지 장막데 통의 절엄함이
잇스리오 내륙십지년에 빅발이성성하거늘 장군이이긋치만 모하니긋하야 장군을조
차욕을 감슈할바업도다 홍스매더욱하야 별긋흔 눈을 밍털이쓰고 푸른눈섭을거스
리며 부용검을 찔러들고 호령왈로 졸이엇지 내압히 무례함이이긋호노네 불과빅운동
초당전에 쉴쓸고나 무하든 재라스부의 명을바다창을메이고나를조차왓스나엇지 장
막지의업스리오 손야 채또 혼더욱대로 왈 장군이 만일 스부의 명을싱각하실진대엇지
만왕을브리고 반복투항하노나본디 만중지인이라 이제 맛당히 산중에 도라가 무의
무신혼자의 회해되지아니리라 홍스매이 말을듯고 발연이 몸을니러 칼을 찔러 손야차
를버히랴 혼대 좌우제장과원쉬만류하야 손야차를붓드러 밧그로내야보내니 홍스매
분분함을마지아니러라 손야채 밧그나와 불승불을하야 왈 내나히만코더를위하야 슈
고함이잇거늘데이제 조곰지조를밋고이긋치고 만하니엇지 그욕을밧으리오하거늘
제장군졸이모다 권왕홍장군의성품이조급함이이긋호니 장군은다시드러가샤례하

고거스리지말라 손야채 양련한왈내머리털이서리긋거늘엇지 잘못흔바업시 입에젓
내나논아히에게부형사죄하리오인하야울을불락하야창을집고 밤든후월하에비회
하며 장란하고사로잡은만병잇는곳으로지나가니 모든만병이고두샤례왈쇼디등의
금일싱존함은손장군의덕이라 장군은다시싱로를지시하쇼셔 손야채 탄왈너의다동
향사름이라 심곡을엇지은회하리오작일홍장군의거동을보라내또 혼고향으로가라
하노니 너의도일제이도망할지어다하고즉시 칼을 찔러 밧그를뺏코닐너와너의이길
로호히저월성도주하라내또 혼필마단기로추신하야도망코저하라 만병이불승감
격하야 눈물을썩려왈 장군은장초어티로가라시느니잇가 손야채 탄왈이곳이변요하
야오래말할곳이아니라하고시야삼경에물을샅고창을들고그만히동문에나라하니
슈문졸이거쳐를못거늘야채왈이제척후하라가노라하고동문에나물게을나월하에
수리를헹하더니로변에오류기만병이내다라왈 장군이엇지이제야나오시느뇨 손야
채들을잡고문왈여러만병이다어티가고너의만여기잇는다만병왕장군은잠잔하마
하야쇼디등의말을드르쇼셔쇼디등이장군의싱활하신은덕을갑스을길이업서문져
흐패노래을동에가렐목장군에게성덕을말씀하고 장군을되셔동중에드러가만중부
귀를누릴가하느이다손야채쇼왈내엇지구구히이를요구함이리오동향인정을위하
연피라너의노셀니도라가면화하라나노이길노넛날잇든산중에가스슴을조조하며독
기를산양하야평성을구속함이업스리라하고채를적여헹하거늘만병이눈물을썩려

며곳비를잡아만류하더라 이때럴목탑아발되태을동문을닫고나지아니하더니홀연
십여기만병이명진으로도망하야와읍고왈쇼디등은임의죽은복슴이라만일손장군
의성덕이아니면엇지금야성환함이잇스리잇고럴목탑에게고왈홍장군은한독호장
쉬려이다쇼디등을무단이진전에죽이자함애손장군이잔하다가홍장군이대호하야
칼을들어손장군을버히라하니제장과원슈의만류함을힘입어손장군을문의에박어
내침애손장군이죽야분분하야도로넷곳으로가라하며그만히쇼디등을지휘하야된
것을쓰코쉴니도주함을말하니이전전의동향인정을도라봄이라이곳치의괴잇는장
슈를인유하야군중에둔죽첫재는홍장군과임의협국이잇스니맛당히우리를위하야
힘을다할거시오돌재는타일부귀를긋쳐누려성환호는덕을갑함이을출가하느이다
럴목탑이침을량구에왈이엇지계교아님을알니오십여기만병이일시에몰을니려교
왈쇼디등의목도함이라만일계교라할진대손장군의괴식을봄애그만흔단식과은근
흔눈물이분울불평하야홍장군을원함이골절에스못치고심곡에밋침호니엇지거
죽지어홀바리오아발되왈손장군이지금어디잇는뇨언미필에수기만병이또망망이
와고왈손장군이지금필마단기로동전에지나며쇼디등이드러움을청하나듯지아니
하더이다아발되럴목탑을보아왈우리군중에장슈적고손장군이도스를조차응당비
함이만홀거시니이제만일진기명진을비반하고갈진대엇지앗갑지아니리오또손장
군은남방사름이라우리맛당히조차가괴식을보아의심업을진대빠여움이묘할가하

노라럴목탑이종시저저하늘아발되창을들고몸을니려왈내맛당히단기로문져가
동정을보아결단하리라하교즉시만병오륙기를다리고몰을밧비모라니르니과연손
야채필마단창으로월하에남을향하고우량초창이가거늘아발되웨여왈손장군은별
리무량하노내잠잔할말이잇스니몰을잡으라손야채곳비를돌녀로방에섯거늘아발
되또흔몰을잡아왈장군이임의공업을쫓두고서석공전에고초를비상하다가엇지다
시산슈를차자더긋쳐도라가는뇨손야채쇼왈인성벽년이초되라공명훈업이쉴구름
긋거늘대장뷔서리털을헛늘니고엇지스싱고락을놈의장중에비라리오남방산천이
곳곳이내집이라류슈를마시며주슈를산양하야괴갈을면함이또흔쾌활한일인가하
노라아발되쇼왈장군이임의풍진을하직하고산슈를창고저할진대초소위런디잔한
인이라떡국의현의홀배업스니루추흔동중에잠잔림하야일숙지연을피고감이느지
아닐가하노라손야채침을왈장군의말슴이감사하나도라갈모음이살긋하야머머지
못하느이다아발되몰우에서소매를잡고지삼곤청하니손야채마지못하야몰머리를
련하야태을동에니르려드러가니럴목탑이불열하나단기로몸을보고또흔겁홀배업
서마져좌대후아발되럴목탑을향하야쇼왈금일손장군은작일손장군이아니라작일
은떡국명장이오금일은동향고인이라맛당히심곡을금초지말고서로슈작하리라럴
목탑왈내비록사괘이였고김흔현의업스나손장군을위하야취치아니함이두가지라
장군이홍장군과긋쳐산에는려군중은위디라홍장군이비록효용하나나히어리거늘

일시구설로다 틈을 인연하야 브리고 가니 그 불취할배하나 히오 명원슈의 응제대략과
홍장군의 무예변법으로 공을 일우아 중국에 도라가 부귀를 누림이 조석에 잇거늘 이제
장군이 적은분을 참지 못하야 대소를 그릇치니 그 불취할배 두가지라 만일을 속인즉
가커니와 진기명전을 브리고 갈진대 이노니 녀의 결결호편성이라 엇지 대장부의 홍
대훈도량이 리오 손야 채장단하고 부답하디니 아발도를 향하야 왈대 장군의 후의를 감
격하야 사례코져 잠간 음이라 이제 도라가 노니 양위 장군은 로력가 찬하야 대공을 세우
쇼셔 말을 모침에 몸을 넣고져 거늘아 발되다 시소매를 잡아왈 장군은 잠잔다 시안져
수비를 마시고 가라 털목랍이 쇼왈대 동향지를 밋고 심곡을 다하고져 하야 추솔호말
숨을 장군의 귀에 거스림이 잇나 만일그런치아 날진대 청산벽운에 도라가느쵸쵸이
엇지이다 지총총하리오 손야 채우고다 시안져술이 수비에 밋침에 손야 채고 장취하야
잔을 늦코혀희장단하며 두줄기 눈물이 좃회하거늘아 발되왈 장군은 무슴번되호일이
잇나 금일시석풍진이 아니라 주석이니 엇지 홍중의 불평호싱각을 쾌히 말하야 서로
무잔호뜻을 보이지아니하느노 손야 채이에니를 갈고 팔을 썸내며 북향하야 취와 반북
무신호니 호조공무예를 밋고더호차교양하니 그패호를 보리라하거늘아 발되문왈이
누구를 취호미노 손야 채단왈 장군이 임의 충곡으로 무르시니 내또호은 취치아니하
리라 빅운도식홍장군을 보내며그년쇼고단호를 녀려하야로 부를 명하야우익이 되게
하니 철십로물이더를 위하야 몸을 앓기지아니하고 위티호를 무릅셔고초를 비상하며

죽음을 아지 못호지니 엇지한심치아니리오 내또호도소를 조차더비호호조를 못비호
이업거늘 나들이호차업수이녀이니 내엇지머리를 속이고 감슈하리오아사털목장군
이나를 두가지 불취로 취하시나 대나를 살해코져하니 내엇지더를 도라보며성품이조
급하고식견이천단하야충언을듯지아니하니 무슴일을호치하리오연고로초시를타
고향에도라가타일취회됨이업고져호미라슈연이나내심년산중에병법과창쓰기를
비호은장비제상에성거나일호미골몰하야초목과호치스려짐을면코져호미러니명
쉬고박하고홍중의 불평호심소를 급초지 못호미라량위장군은로장의략척호호단식을
웃지말쇼셔초시털목랍이손야채의거동과말을드름애진실로호호탈을원망하야
되확히잡은모음이잇는듯호지라바야호로우으며다시쥬비를들어위로왈장군의용
맹으로어디가공업을일우지못하리오곳곳여적막호호산중에신세를밋고져호은장부
의뜻이아닐가하노라손야채쇼왈로비장군의의향을아노니손야차의외로이도라가
는신세를가련이보사거두어취하에두고져호심이나로위엇지빅슈풍전에두번취회
호일을호하리오털목랍왈엇지닐은두번취회되일이노손야채왈스부의명으로만왕
을구하랴와다가무신호사름의잔배에속아명전에투항호엿스니이디경을당하야호
번취회됨이오만일다시취하에의탁고져호죽얼골이두터를썬아니라장군은야차의
심곡을알거니와만왕이엇지용랍하시리오이노두번취회됨이잇슬지니일즉이산중
에도라가범을조차창법을시험하고돌을모아진법을강마하야여성을쇼견호미올호

가항노라텔목랍이 초연을듯고이에손야차의손을잡아왈장군은의심치말을지어다
우리대왕이지조를스랑하시고도량이관홍사홍장군의편협함과명원슈의년쇼괴
예함이업슬지니장군은본디만중지인이라타일만중부귀를긋치누림이엇지아름답
자야니리오손야채홀연텔목랍을이윅히보다가려성왈내홍장군의명을바다거죽항
복야배교를헛코져왓스니장군은다시싱각홀지어다텔목랍이대쇼왈손장군의조
감은가위거울긋도다내아사과연장군의형석을잠잔의심하얏스나이는덕국지간에
상식라장군은개회치말라손야채또한대쇼왈량위장군이이긋치허심관되하시니엇
지감동치아니리오다만만왕이회환하신후곳쳐거취를당하리라하고다시술먹고한
담홀시밤이임의스오경이지니군중루쉬어지고재벽별이동련에놓혔더라텔목랍
아발되조연비주에곤흔배되야각각갑옷을글으고미첩에조름이몽롱하더니홀연복
문밖새합성이대작하거늘텔목랍아발되대경하야급히갑옷을닙고대군을호령하야
복문으로가라하시니손야채쇼왈장군은경동치말으쇼서이는홍장군의병법이라장초
남문을치라하며몬져허성을내여복문을방비케홀인가하노라텔목랍이오히려불신
하고스스로정병을모라복문으로가방바하더니과연과척이적연하고또서문에합성
이대작하거늘텔목랍이다시정병을노화서문을직히니손야채또쇼왈이는홍장군의
병법이라장초동문을치려함이라텔목랍이반신반의하야오히려서복량문을힘써방
비하더니아이오서복량문에합성이침식하고과연명병이일제이동남량문을급히쳐

포향이던디를흔들며바회긋흔텔환이동문을세치라하야형제장급흔지라텔목랍
아발되바야호로손장군의말이마음을알고급히서복문정병을거두어두패에는화텔
목랍은남문을직히고아발도느서문을직히며놈은군사로동복량문을방비하게하더
니홀연손야채창을들고몰개올나크게흔소리를지르며는다시복문에니르려슈문
만병을흔창에찌르고복문을통기하니일디명병이일시에랍합하고살긋치돌입하며
일원대장이벽력부를들고우뢰긋치소리왈대명선봉장군되련풍이여괴잇스니텔목
랍은부줄업시남문을직히지말라하고그뒤를니어소스매수천기를거느려식살하니
손야채또임의서문을통기흔지라동효마달이또일디군마를모라서문으로돌입하니
초시동남량문에포향이오히려부절하고텔목랍아발되슈각이황망하야방비치못홀
줄알고일시에창을들며명장을덕홀시되련풍소스와동초마달스장이합력식살
하니텔목랍아발되엇지덕하리오손야채웃고창을두루며물을노아남문을향하야
달녀가며왈텔목장군은나를싸라오라내남문을마져열고도망홀길을빌니라하거
늘텔목랍이황망흔중손야차를봄애홍중에무명엽해만장이나니러나느니라대척왈
이슈염업노로구긋흔적한아잔교흔씩를내알고속앗스나맛당히네잔을취하야이분
함을풀니라하고창을춤추어바로찌르라하니손야채싸호지안코물을달녀가며가가
대쇼왈장군은분노치말지어다산중으로도라가는사름을무단이만류하야도라단이
며여러문을열나하니엇지슈고롭지아니리오하고일변말하며일변물을채쳐남문에

니르르또남문을통기하니양원쉬홍스마와대군을거느려동중에돌입하니츠시에동
중에철장파십만대군이물미듯드러와목목이에위쓰며곳곳이엄살하니함성우동학
을뒤집고런디를흔들거늘털목탑아발되비록만부부당지용이잇스나엇지해여나리
오하회를보라

데십륙회

축융왕이환술로신장을놀이고

홍스매진을변하야만병을파하다

祝融王幻術降神將
紅司馬變陣破蠻兵

각설털목탑아발되도망코져하나도망할길이업고싸호고져하나더당할방략이업서
다만창을들고동으로충살하야남으로닷고서호충돌하야북으로다르며비록죽기
로싸호나런라디망을엇지버셔나리오다만동문길이열남을보고물을노아등을향하
고다라나더니손야채또창을두루며웨여왈털목장은셀니형할지어다로워분주하
야밋쳐동문을열지못하얏스니장군은천이열고나가라명일로워다시산중으로도라
가고져하노니맛당히또털목동에드러가님은술을마져먹으리라이때털목탑이손야
차를맛남애새로이분과니러나충렬할듯하야크게호소리고함을지르고다라들며바
로야차를찌르려한대손야채웃고물을채쳐다라나며양원슈의대군이니르느니라털
목탑아발되홀일업서동문을열고거오성명을보전하야털목동으로드러가패한만병

을덤고하니절반이나업더라아발되털목탑을타하야개연장단왈금일패함은내죄라
장군의붉은장락을거스려손가로적을청하야이화를조취하니장초하면목으로장군
을타하며우리대왕을죄오리오칼을빠혀조문코져하니털목탑이급히붓드러왈우리
량인이곳대왕의명을밧아동학을지희니공을일위도맛당히부귀를곳치누릴거시
오죄를지어도맛당히곳치당할지니장군의야차를청함도왕스를위함이라모음으로
의론한즉일호다름이업거늘이곳치조협하야부인녀조치죽음을경이히하랴하니
평일밋는바아니로다설파에갈을아셔싸에디지니아발되샤레왈지아자도포속이오
이아자도포속이라하더라이때양원슈다시태을등을취함에대군을동중에안돈하고
크게호쾌할시소스매홍스마를보며왈금일싸함은장군의처음용병함이라내장군을
흔갓무에절륜한쇼년명장으로알앗더니엇지그용용한괴상과정제흔지락이유장지
풍이잇슴을짐작하얏스리오손야채쇼왈태을동싸함은전혀로장의슈단이라필마단
창으로월하에독형하야아니나는눈물파하기실흔탄식을억지로자아내야도망하느
로장의본석을지으랴하나털목탑은다모흔재라의심하느괴석이미우에그득하거늘
맛침리추흔팔독을쏟내며싸진아감니들아드득갈아우리홍장군을원망하니엇지
능업는자의홀바리오모다대쇼하더라차설나락이빅운동에니르르도스를차조니임
의잔디업고다만청산이렷렷하고빅운이유유하거늘나락이분함을이기지못하야방
황하다가축융동을향하야가니동학이괴험하고산천이장대하야호표의쉬파람과식

朱突通
帖木忽
賈達

랑의자최빅일에회형하더라동중에니르려축융대왕을보니신장이구척이오눈이푸
르고얼굴이붉으며범의나룻과곰의허리라빈쥬지례로나락을마져좌등후나락이치
단과명쥬보패를드리며구원을청하니축융대왕이대희왈린국에쳐하야엇지환란을
긋치아니하리오하교즉시수하만장삼인을다리고갈식그하나는던화장군쥬돌동이
이니월도를쓰니각각절인훈용밍이잇더라나락이다시축융에게청와과인이드르니
대왕세교괴잇서영웅이무쌍하다하니비록불감하오나부왕을되서종군하신즉더욱
감사할가하나이다축융이침을왈녀이니하어리고던성이줄하야종군함을즐거아닐
가하노라나락이다시명쥬빅미와만포빅필을드리며근절이청하대바야호로하락하
더라원리축융의살일지련의나히십삼세라즈식이절디훈중절묘훈무예와총혜훈성
품이남만풍괴업고불우강개훈모음이잇서중화문물을훈번구경코져하나만리남던
에북두를브라보고녀즈유행이장부와다름으로오미에불우지훈이잇더니부왕이나
락의청하느낯을전훈대일지련이쌍창을들고부왕을조차오니라츠시나락이본국에
도라오니임의태을등을일코렐복동에옹거하엿거늘나락이대경하야렐복랍아발도
를차즈니좌위보왈량장이진문밖게대죄하느이다만왕이밤비부르라하니량장이투
구를벗고도채를지고장전에업드려죽기를청왈쇼장등이대왕의부락하심을삼가지
못하야동학을일엇스니군를을도망치못할지라복망대왕은쇼장의머리를버혀군중

一枝蓮

을징계하쇼셔만왕이허희단식하고오름을명하야위로왈이느과인의명쉬라엇지장
군의부러흐바리오명진동정을일일이무른대량장이대강고하교홍장군의지혜와장
략이양원슈에더흐를말하대축융대왕이불열왈과인이비록용렬하나대왕의일흔싸
를불일회복하리니명일도전하깃노라하더라츠시홍스매년쇼가인의연약하느절로
풍진시석에실섭하야신과자로불평하더니일일은원슈중용이장중에불너군무들의
론할시용되파리하교괴식이곤함을보고경왈랑이나를인연하야더긋치고초하니년
쇼약질이강박하바아니라몸을쉬여도리홀도리를싱각하라홍랑이쇼이샤왈자쉬되
야수일풍진을엇지슈고롭다하리잇고원슈웃고손을드러도화긋흔뺨을어루문져왈
부용장거울압히미화를단장하야새벽고운을잡내든옥안홍협으로괴치창검의모진
바람을무릅쓰게하니네소위양공즈는박정훈남지로다홍랑이아미를썩고며물너안
져왈장불환령이라삼장약속을어느쉬니즈시니잇가장외에소스마의발자최하느이
다아시오제장이니르릿거늘홍스매물너막츠로도라가쉬더니시야야심후손야채급
히와원슈외고왈홍스매대단이한전하교고홍하다하거늘원슈대경하야막츠에니르
려봄애홍랑이축하에벼기를의지하얏스니룩운쌍빈에성관이기우릿고양류세요에
전파무거워무르녹은티도와병약훈용되정신이흔흔중심음하느소리후중에은은
하거늘원슈집막하교쇼왈이느풍한소쉬라비록심례업스나십분조심하라하교천히
요디를글으며전포를벗거침상에누음을지축하니홍랑이쇼양왕군중이규방과달나

원슈의 일동일정을 제장군졸이 눈을 밝히고 귀를 기우려 숨히느니 원슈의 가신 후첩이 누으랴는 이다 원슈 웃고 몸을 나려와 내부 줄 업시 랑을 장슈로 부려라 일환가 혼후이 버릇을 곳치지아녀 개쥬의 불비하는 풍되 잇고 화촉에 유한호즈미 업슨 죽엇지하리오 홍랑이 또 혼미쇼하더라 원슈 그수일도 접하고 군무에 참예치 말물지 삼당부 혼후오니 내임의수일도 접함을 허하얏스니 금일지스는 내장군과 주선하리라 쇼스매 왈나탁이 구병을 청하야 왓거늘 경덕지 못할가하느니 다원슈 덤두하고 형군하야 털목동전에 진을 칠시 섰던 십방을 응하야 음양진을 치니 일천기는 북은기를 가져 남방에치고 이천기는 검은기를 가져 두세에는 화정북방에치고 삼천기는 북은기를 가져 세세에는 화정동방에치고 육천기는 검은기를 가져 여섯세에는 화정남방에이위에치고 칠천기는 북은기를 가져 칠곱세에는 화정북방에이위에치고 팔천기는 검은기를 가져 여덟세에는 화정동방에이위에치고 구천기는 북은기를 가져 아홉세에는 화정서방에이위에치고 오천기는 누른기를 가져 다섯세에는 화정중군이되야 중앙방에치니 닐은 섰던 음양진이라 진세를 배둔후전부선봉되던 풍으로 진전에나서도 전하니 축융대왕이 머리에 홍건을 쓰고 몸에 구리갑옷을 입고 손에 홍괴를 들고 코기를 두르고 만병을 거느려 북을 치며 정을 내려 향오와 츠레 업시나오거늘 원슈 소스마를 보아 와내고 금병셔를 약잔보앗스나 더곳 혼병법은 초견이라 언미필에 일기만장이 삼척모를 두루며 물을 노아나오며 왈나

는던 화장군 주돌흥이라 당할재잇거든 내삼척모를 밧으라하거늘 되던 풍이 웃고 벽력 부를들고나오며 크게 위여 왈나는 대명선봉장군되던 풍이 오이도 채는 일혹이 벽력뼉라 내임의던 화장군이라하느니던 화는 벽력을 쓰라드이는 불이라 썰나와내도채를 밧으라하거마져 싸화십여합에 불분승뵈러니만진중에 또일기만장이기산대부들을고나오며 왈나는 축산장군털목홀이라내또 혼근도 채잇서 피를 썩은 죽되 문혀지느니로 장의머리능히되곳치든 든할쇼나하거늘 대명진중동최창을 춤추며나가썩지져왈나는 대명좌익장군빅일표동최라내슈중에 일도장창이잇서 오래창신에 깨제하지 못하얏더니오늘털목홀의 피를 무쳐 창신을 위로하리라고스장이범곳치뒤놀며곰곳치다라드러대전이십여합에되던 풍이 혼연물을 싸쳐다라나니 주돌흥이 삼척모를들고 조차오거늘 되던 풍이 혼소리를 지르고 몸을 소사벽력 부를뒤호로돌나치니 주돌흥이 밧쳐 피치 못하야 물머리를 마져 물이 업더지며 주돌흥이 번신락마하느니만진중든갑장군가달이대로하야 월도를 두루며 크게 소리왈나는 축융대왕의 휘하명장단갑장군가달이라 대명진량장은 썰니 목을느리혀내월도를 밧으라하고 곳되던 풍을 향하야 다라드니 명진중손야 채 급히 창을들고 물개을나나가며대쇼왈네둔갑을 잘할진대내머리를 버힐지나다시새머리를기비할쇼나가달이대로하야 손야차를 마져대전수합에 혼연월도를넙히세고 몸을근두쳐일기빅익대회되야 다라들거늘 되던 풍이 대경하야 황망이벽력 부를들너손야차를도으라하더니빅익회근두쳐다시변하야량기대회되여달

녀드니 양원쉬진상에서 브라보다가 경왕만장의 환술이 더호니 혹실슈함이잇슬가
 호노라호고 정을쳐삼장을거두니 츠시축융대왕이진전에나서승부를보다가 양원쉬
 정을쳐삼장을거둠을보고 급히슈기를쓸며입으로 진언을넘하니 붉은구름이스면에
 니러나며무수귀병이만산편야호야입으로 불을토호며코으로 내를뿜어명진을충돌
 하니 양원쉬 급히제장을약속호야진문을닫고방위를츠려기치를정제이호고부오를
 착란치말라하니 축융의귀병이스면으로에위싸되파치못호는지라 축융대왕이진언
 을다시넘호며현무방위를그르쳐작법하니경각잔에런디혼혹호고풍위대작호야양
 사주석호나명진의기치정정호고각이연연호야조곰도요동치아니호니원리양원
 슈의음양진은이에무곡성관의데원을호위호는진이니전혀음양오행의상징지리를
 응호야혼연일단화기라사기엇지침범호리오축융이다만요술을알고진법은모르
 는교로두번침범호다가파치못함을보고심중에의아호야즉시군스를거두어도라가
 나락을보고왕명원쉬비록진법을아나신괴호도술이업스나과인이맛다히명일곳쳐
 도전호야륙병륙무의신장을부르고륙병륙갑의귀줄을호령호야성금호리라호나
 락이대회호더라차설양원쉬소스마를장중으로불너왕축융이슈하에밍장이만코케
 술이난축호니졸연이파치못홀지라엇지면도호리오소스매왕홍장군이일즉도스를
 조차병법을비화다호니또호요술을제어호는방략이잇슬가호오니불너상의함이올
 홀가호는이다원쉬침음량구에심중에싱각호되홍량의병이전혀절역풍진에로심로

력호소쉬라이제다시요란호거동과음홀호기운을받게호죽병죽약질이엇지축상치
 아니리오호야소스마를보아왕홍장군이실병이잇서내입의톈섭함을허호앗스니장
 군은중용이가다만게교를무러오라소스매웅명호고가니라츠시홍량이정신이혼혼
 호야축융을글으고침상에누엇더니소스마의음을보고니러서안에의지호야안즈니
 과리호귀밋히한기그득호고몽롱호미침에곤호고척이즈욱호야천식이딕딕호고성
 괴더미호거늘소스매심중에경의호야왕내홍호탈은영웅무떡호고국스무쌍으로아
 랫더니엇지이제서시의쌍긴티도와귀비의조으는괴미를씨엇호고호며압하나아
 문왕장군의병세금일은엇호호호스매왕천질은일시미양이라념려홀배업스나금
 일진상동정이엇호호호소스매대강말호고원슈의문배호는뜻을전호대호스매대경
 왕쇼장이무슴게교잇스리오마는멀니료량치못홀지니천이가보리라호고좌우로전
 포쌍검을가져오라호야소스마를싸라진중에니르니원쉬경왕장군의병세풍한을축
 상함이불가호거늘엇지몸소니르호호스매왕쇼장의병은소쉬중치아니호니과려호
 실배아니라다만못잡호는지제엇호호니잇가원쉬왕나락이새로구병을청호호야오
 니소위축융대왕이라도술이비상호고슈하에밍장이만아내남방에온후처음당호는
 강력이라경술이더덕지못홀듯호고문을닫고직히엿스나명일다시도전호죽결승
 홀방략이망연호니장군은무슴묘계잇호호호스매왕쇼장이아싸보니원쉬치신진은
 천상무곡성의데원을호위호는음양진이라그직힘은축호나취승함은부족호니쇼장

이맛당히 후련진을 쳐도 적을 사로잡을 가호니 원슈는 슈기를 빌니 쇼서 원슈대희 허락하니 홍스매 즉시 원슈의 슈기를 들고 진상에 올라 북을 쳐 진을 칠시 정남과 정동방은 의구이 두고 정북과 정서방은 방위를 밧구고 북방에 이위는 동북간방으로 보내고 서방에 이위는 서북간방으로 보내고 동방에 이위는 동남간방으로 보내고 남방에 이위는 서남간방으로 보내되 정방군스는 북은 기를 가져 각 세 방위를 낮호야 서고 간방군스는 검은 기를 가져 각 세 방위를 등지고 서라 후다시 약속을 북을 치며 북은 기를 들거든 정방군스 응호고 검은 기를 들거든 간방군스 응호라 임의 진세를 변역호고 약속을 덩흙애 원슈진상에 올라 보고 심중에 기이히 녀여 왈 내홍랑을 일기 경국가인으로 알앗더니 엇지 경련위디 홀치 죄잇슴을 밋엇스리 호호더라 홍스매 다시 소스마와 제장을 불너 각각만히 약속호후 장중에 드러와 원슈씩고 왈 벋불염새라 축융의 요술을 엇지 전혀 정도로 디덕호리 잇가 첩이 일즉 벋운도스를 조차 섰던 둔갑병셔를 보아 강마제살호는 법을 비화스니 그 법이 외인을 괴호는니 원슈는 잠간 제장을 조속호쇼서 호고 시야삼경애 진중중앙방에 장을 느리 호고 홍이 목욕호고 오방을 응호야 다섯 등잔을 벋히고 부용검을 집고 그 만히 작법호니 거죄비밀호야 외인이 알길이 업더라 익일 축융대왕이 만병을 거느려 진세를 배돌식열두 방위를 호화오 식기를 빚고 군식각각 창검을 들고 나서니 홍스매 비라 보고 미쇼호며 되련봉으로도 전호대만 진중털북홀이 출전호니 수합이 못되야 명진중동초마달이 일시에 창을 두루며 크게 위여 왈 내금일은 축융의 머리를 취홀지

니 털북홀은 썰니 드러가고 축융을 내여 보내라 호대만 진중주돌통가달이 대로호야 또 혼일제히 나와 룡장이 어우러져 대전십여합에 명장삼인이 일변싸호며 일변물너나나타이 축융을 보아 왈 명장이 싸홀에 쫓이 업고 초초물너나니 이는 인유함이 라 명원슈의 계술이 난축호니 삼장을 거두어 랑패함이 업게호라 축융은 본디련성이 급호지라 이 말을 듯고 분연왈 내금일 명원슈를 잡지 못호죽도라 가지아니라 급히 기를 쓸며 진안을 넘호니 홀연 광풍이 대작호며 음운이니러나논곳에 무수귀병이 괴호현용과 현황호거등으로 들을 덥혀 장슈의 위세를 도아 명진을 출살호거늘 홍스매 급히 북을 치며 괴를 좌우로 쓴대 간방군스 일시에 문을 열고 갈나서니 이때 만장삼인이 귀병을 모라 명진을 에워싸고 스면을 치되 처치 못호더니 홀연터진 곳을 보고 귀병을 모라 돌입호대 홍스매 다시 북을 치며 검은 기를 쓰러 간방진문을 닷고 부용검을 들어 오방을 향호야 그 만히 작법호니 홀연일진청풍이 칼뎡을 조차니러나며 음운이 살아지고 무수귀병이 봄눈술듯 변호야 분분 홀썰리 와 곤곤 호나 무늬되여 공중에 떠러지니 주돌통가달 털북홀이 대경호야 필마 단창으로 진중에 방황호며 스방을 출돌호야 도라든 일식 호스매 진상에 높히 안져 부용검을 들어 남을 그침애 삼리 화불이니러 화광이 출련호고 북을 그침애 룡감슈물이 소사대히 망호며 동셔를 그침애 퇴위대작호고 큰 못이 압히 당호니 삼장이 정신이 미란호야 갈바를 모지라 가달이 근두쳐 변신코져호더니 홍스매 또 부용검을 들어 그치니 홀쭉기괴운이 머리를 눌으며 세번 근두쳐 변형치 못호고 호

마디소리를지르며락마하니쥬들동렬목홀이양던탄식하고칼을싸혀목을지르고저
하더니홍스매손야차로진상에웨여왈만장은드르라네성명을빌녀죽이지아니하노
니셀니도라가죽음에게전하야일즉이와항복하게하라만일더딘즉대해잇스리라하
고즉시진문을열어주거늘삼장이머리를싸고쥐고치도망하야죽음을보고탄왈홍장
군의도술은정정하되라당치못할지니대왕은각승치말으시고일즉이항복함이가할
가하느이다죽음이대로하야삼장을물니치고칼을들어십이방위를그르치며량구히
진언을넘하더니홀연공중에일성포향이동련을흔들며살피죽을하야스면팔방으로
시신신장이음습흔과운과홍녕흔모양으로각각병장기를들고풍우갓치모라오니하
늘이문혀지고싸히싸지는듯일시에명진을치거늘홍스매슈괴를놓히들고호령왈제
장삼군은다만이슈괴를보라보되한눈파는자노참하리라하니제군이팅령하고일제
이슈괴를우러러보며군중이숙연하야감히요동치못하느니라홍스매이에북을치며
중앙오천괴로방진을일위치고다시북을치며북은괴를쓴대동서남북정방군식일
시에진문을열고갈나서니츠시죽음이신장을호령하야명진을둘코저하다가홀연진
문이터짐을보고신장시신을모라진중에돌입하니홍스매즉시북을치며괴를쓸어진
문을닫고부용검을들어오방을그르침애오석구름이오방으로너러나진중에그득하
야삼군의눈에신장시신이보이지아니하고다만물굽소리와괴치창검이운중에섬홀
분분하더라홍스매북을물니며합전홀식정서방구벽괴는금극목으로갑을방을치고

정동방삼천괴는목극도로무괴방을치고정남방칠천괴는화극금으로경신박을치고
정북방칠천괴는슈극화로병영방을치고중앙오천괴는토극슈로임계방을치니산악
이문혀지고바다이뒤집는듯던디진동하야일장을싸호더니홍스매다시북을치며검
은괴를쓸때동서남북정방군식일시에진문을열거늘츠시십이신장이오형의상극함
을이괴지못하야되군코저하다가정방진문이열납을보고일제이쉴코나와스방으로
허여져잔곳이엮느니라죽음대왕이진전에서보라보고분흔괴운이등련하야다시입
으로진언을넘하며슈중장검을공중에더치니이무승요술인고하회를보라

데십칠회

일지련이단괴로제장과싸호고

죽음왕이의를감동하야명진에항복하다

一枝蓮單騎鬪諸將

祝融王感義降明陣

각설죽음대왕이대로하야슈중장검을공중에흔번더짐애삼척장검이변하야빅여척
장검이되거늘다시근두쳐몸을변하야키빅여장이나되야장검을두루며명진을향하
야오니홍스매보라보고미쇼하며몸을나리장중으로드러가며스면에장을느리고적
연이동정이엮더니홀연흔줄기빅괴장중으로너러나빅여장이나되느니홍스매되야빅
여척부용검을들고죽음을터덕하니죽음이다시변하야적기팃만흔사람이되야침쑏
곳흔칼을두루며오거늘홍스매또흔변하야티쑏곳흔사람이되야털쑏곳흔부용검을

두루며 죽음의 침묵은 혼칼날에 영귀여 떠러지지 아니 할대 죽음이 다시 변하여 칼과 사
육은 잔디 업고 혼줄기 후괴되야 하늘에다 앓거늘 홍스매 또 혼줄기 청괴되야 두줄기
괴운이 반공에 어우러져 다 만경연 혼칼소리 운간에 들니더니 혼연 후괴 떠러져 변하여
흰 잣나비되야 다라나거늘 청괴 또 변하여 둥근 탄지되야 잣나비를 맛침에 잣나비 다시
변하여 비암이되야 바회름으로 드러가니 그 탄지 또 변하여 벽력이되야 바회를 쳐 천대
그 비암이 입으로 검은 안귀를 도하여 지척을 불변하니 그 벽력이 또 일진대 풍을 지어 안
귀를 불어 멀리 조침에 던디 청명하고야 모 것도 업는 지라 아이오 홍스매 웃고 장중으로
나오니 초시 제장과 삼군이 진전에서 브라보며 정신이 송구하니 홍스매 장중으로 나
음을 보고 다도와 압히나아가 문왈 죽음은 어디로 갔스며 장군의 금일 도술은 그무슨 법
이니 잇가 홍스매 쇼왈 제간 도술이 오히려 리에 버셔 남이 업는니 그 상성상 극흔리를 알
아 세어 혼죽지 이 혼지라 대범사림의 눈은 목에 속하고 몸은 화에 속하니 눈으로 요란
함을 본 죽목괴 허하고 목괴 허 혼죽목성해니 화괴 스라 허하며 화괴 허 혼죽 몸이 약하
고 심괴 허 혼죽 화공 죽발이라 화괴니 러나 금괴를 극홀지니 금은 살벌지괴라 사림이 살
벌지괴 전 허 업슨 죽잡렴이 성기는니 엇지 요술에 현란치아니며 혼변 현란 혼배된 죽엇
지제어 하리오 연고로 내 후련진을 쳐 오히려 상극지리를 배풀고 슈괴를 놓히들고 삼군
의 이목과 몸음을 전일하게 함이니 삼군의 몸음이 전일하고 오히려 상극함을 일치아니
혼죽 요술이 엇지 범하리오 또 나종싸호든바는 검술이니 그 변화함이 크기는 쉽고 적기

는 어려오며 그 후괴는 요술이 오히려 도술이라 지어 흰 잣나비는 당나라 원공의 칼법
이오 탄조됨은 한나라 위씨의 검술이며 그 비암됨은 도정군의 비법이며 그 안귀와 바람
됨은 검술하는 자의 심상 혼법이래 대개 검가의 괴하는 배세가 지니 지물을 담하여 검술
을 부림을 괴하며 착하니를 해치라고 검술을 부림을 괴하며 애조지원을 위하여 무단이
살인함을 괴하는니 이제 죽음의 검술은 잡렴이 무득하여 정되아니라 내 죽이지아니 함
은 정히 인명을 살해코저 아님이니 연이나 죽음이 두번 패하여 술업이 궁하얏스니 다른
계피 업슬가 하노라 제장이 탄복하더라 초시 죽음이 패하여 본진에 도라와 불승분괴하
야 칼을 빠허 목을 찌르라 하니 일지련이 잔왈 소네 임의야야를 되셔 종군하야 이곳에 왔
스니 혼변싸화스심을 결단홀지니 부친은 잠간 분심을 참으시고 쇼녀의 몸을 기드리
쇼셔 죽을왕내 일기녀지 엇지 하리오 명장의 법법과 검술은 현신이 하강함이니 녀의
당홀배아닐가 하노라 일지련이 분하여 물게올나 진전에 나가도 전 혼대 홍스매 바야호
로 대군을 모라 만진을 쇠살코저하더니 혼연 일기녀장이 다시도 전함을 듯고 진상에 나
서 브라보며 과연 쇼녀녀장이 머리에 붉은마락을 쓰고 몸에 초록슈노은 옷을 입고 대
완모를 두고 쌍창을춤추며 나오니 빅설코 혼아미에 추패막막하야 정괴어리엇스니 그 총혜
니그년치어림을알거시오원산코 혼아미에 추패막막하야 정괴어리엇스니 그 총혜
을 짐작홀지라 호치단순에 절디 혼조식과 록빈운발에 화려 혼괴상이 엇지 남방 풍도의
성장 혼인물이 리오 홍스매 심중에 대경하야 손야차를 명하야 나가디 덕하라 하니야 체

창을 들고 나가며 쇼왕이 는반드시 축융이 요술을 부려 귀들을 청하야 오미라 남방오랑
캐엇지이곳 혼술을 나으리 오호고 서로 싸화두어 합이 됨에 일지련이 쌍창을 넘히키고
손야차를 성금야본진으로 도라가니 호스매대경하야 좌우를 보아 왕늑능히더장슈
를 성금야손야차를 밧구어오리 오로련풍이 벽력부들고 분연히나가 싸홈이소
합에니름애로련풍이 창법이어즈러워도 채로 쌍창을 막기를 겨를치 못하거늘 동초마
달이 일시에 창을 들고련풍을도와 또 십여합을 싸홈서일지련이 정신이 추월코고괴상
이들을하야 창법이 조곰도 호란치아니호고 일호케술이 업거늘 호스매비라 보고일변
그저조와안식을스랑홀뿐아녀동시쇼년녀조로엇지모음이 가렵고호승이 업스리
오정을쳐삼창을거두고천히물게을나왕세장쉬일기녀조를못취하니무엇이쾌하리오
호흔탈이비록병드나나가성금홈을보라호고 쌍검을춤추어나가니일지련이바야호
로수합을접전홀시양원쉬호랑의출전홈을알고대경하야천히전전에나와정을치니
호스매도라와연고를무르대원쉬정식왕내장군을편벽도이스랑홈이아니라국가를
위하야잔성지지를앗거병을도섭홈을부탁하거늘이제도로혀출전홈은엇지홈이
노호스매왕손야차노쇼장의고인이라이제만장에게성금호배되고그를구코저홈
이니이다원쉬쇼왕내장군의뜻을아니쇼년예기로년쇼녀지도전홈을보고무예를
결으고저홈이나이제장군의용모괴석이전일과달나망령도이출전치못홀지라엇지
다른장쉬업스리오로련풍이크게소리왕쇼장이다시나가아사다못손도채를시험홀

가하느니이다원쉬대희하락하니호스매쇼왕내만장을봄애무쌍호조식이오절인호
지죄라그옥히이지척지하노니장군은삼가살해치말고성금야오쇼셔로련풍이대
쇼왕련풍이형년철십에장부의모음이라엇지구성유취의잔약호녀조를도채로취하
리오맛당히호장군을위하야무양이안아올가하느이다호고물을노아나가더라츠시
일지련이창을거두고전전에비회하며심중에싱각하되내일죽중화문을구경치못
하얏더니금일명원슈의용병장략과제장의인괴물식을잡간봄애숨호도다우리만릭
지방에성장호인성은진짓우물밧고리라이제중국이만왕을져버림이업거늘만왕
이무단이벽혈을날히여련위를항하하니엇지당량이수리박회를막음조지아니리오
내또드르니명원슈살육을일삼지아니하호고의리를주장하야덕으로써남방을감화코
져하다하니맛당히이때를루스괴를보아련조에귀순하야부왕의미련지죄를풀게하
리라또그만히의심왕아사그쌍금쓰든장쉬용모풍치비범홀뿐아니라그조식과칼쓰
는법을보니사름을앗기고스랑하노의식잇스나미목이아름답고성음이유한하야십
분남조의괴상이업스니엇지괴이치아니리오하더니로련풍이다시와도전홈을보고
마져싸홈서좌슈로창을들고도채를막으며우슈로로련풍을통락하야서리곳혼창날
이섬홀분분하야로장의귀밧히바람조치지나되일죽상홈이업거늘련풍이일변의아
하며일변당치못홀줄알고힘을다하야도채로호련침애일지련이몸을소스며우슈의
창을번개조치드러련풍의투구를싸려쳐치니련풍이번신락마호대일지련이랑량이

쇼왕장군은 셤니 도라가 아사쌍검쓰든 장군을 내여 보내라 하거늘 락풍이 또 혼되덕지 못홀지라 본진으로 도라와 홍스마를 데하야 녀장의 창법이 절륜하더이다 고하니 홍스매원슈씩고왕쇼장이 남방강한 혼풍과를 비화분함이 잇슨즉스심을 불고하느니 이제 출전함을 허락지 아니하신즉도로 허병이 더홀지라 본대십합을 명하고 만자를 싣금치 못하거든 징을 쳐거두쇼셔 원슈를 거허치아니코저하나 형적이너모드러날가하야 민면허락하니 홍스매성각하되 일지련의 창법이 일호계술이 업스니 내또 혼정도로 싸화조응을 결하리라 하고 슈중쌍검을 어즈러이 혼드러 혼번뒀여 드러가고 혼번돌쳐물너나니 이는 허룡룡주법이 라룡이여의 주를 어루는 법이니 일지련이 홍장군의 검술이 법도 잇서 경역지 못홀줄알고 쌍창을 촘추어 곳홍장군에게 다라드니 이는 추준하산 법이니 가을새미되에느리는 모양이라 홍장군이 좌슈의 칼을 공중에 더지고 우슈의 칼로 일지련을 견주며 몸을 달녀스쳐지나 가니 이는 연축비화법이 니제바느는 솜을 차는 모양이라 일지련이 우슈의 창으로 칼을 막으며 좌슈의 창으로 홍장군을 휘하랴하니 이는 미후투과법이 니 잣나비 실과를 도적하느는 모양이라 홍장군이 몸을 굽혀 창을 피하며 쌍슈쌍검을 공중에 더지고 몸을 돌려다라나니 이는 명호미더법이 니 사나온 법이 셤리를 샅히세느는 모양이라 일지련이 마상에서 몸을 소사쌍창으로 쌍검을 막으며 몸을 달녀홍장군을 조치니 이는 빙랑축륙법이 니 흰일회스슴을 솟느는 모양이라 홍장군이 물머리를 돌녀며 쌍슈로 쌍검을 들고 우슈의 부용검으로 공중을 견우며 좌슈의 부용검으로 일

지련을 치라하니 이는 스자박도법이 니 스적독기를 치느는 모양이라 일지련이 쌍창을 동으로 견주며 서으로 번득여 일진일퇴하니 이는 지주박덤법이 니 검의나뿔을 엮느는 모양이라 혼연쌍검쌍창이 일시에 어우러져서 리웃 혼칼날과 번개웃 혼창삿이 훌훌분분하니 이는 회풍곤설법이 니 회호리바람이 빙설을 날느는 모양이라 아이오창검과 사름은 잔디업고 두줄기 청괴반공에너러서로 싸호니 이는 쌍교반련법이 니 룡룡쌍이 하늘에 닮게느는 모양이라 반향이 못하야 일지련이 쌍창을 거두며 몸을 싸쳐 닦고저하니 이는 경홍망운법이 니 놀느는 기러기 구름을 본라보며 놀고저하느는 모양이라 홍장군이 물을 노아드러가며 부용검을 넘히세고 팔을 늘허여 일지련을 마상에 싣금하니 이는 창응하구법이 니 푸른미뿔을 움키는 모양이라 홍장군이 일지련을 룡합에 싣금하야 본진에도 라오니 대개이번싸움이 덕슈상봉하야 계술을 본리고 정도로 결우매일지련의 심열성복함을 말하지 말고 홍스마의 일지련스랑함이 또 혼곤절하야 즉시진중에너르러 홍스매일지련의 손을 잡고 위로와내금일랑을 싣금함은 검술이 승함이 아니라 하날이지고 상봉함을 도으심인가하노라 일지련이 사왕첩은 패군지장이라 엇지지를 말하리오 장군은 그 신세의 잔인함을 불상이녀이 실진대맛당히 회하천졸이되야 견마시성을 다홀가하느니 다홍스매쇼왕내비록 심히 불민하나량이 만일 멀나아니 홀진대봉우지의를 데질가하노라 일지련이 눈물을 썩려와 첩의아비일즉련조에 득죄함이 업고 불과린국지의로 만왕불구하랴와다가 망사지죄에 범하얏스오니 엇지 살기를 본라리오마는

장군의인조상심과원슈의관홍상심으로만일측연이불상이보시고대죄를사하야슈령을보전케하시면그은덕을결초하야갑스를가하느이다홍스매왕이논원슈씩고호후후도리잇슬가하노라하고일지련을다리고원슈씩외은후홍스매종용고왕축용이비록만왕을팔시치못함이오나곳하야불케지심을포장함이아니오나그죄를용서하야하야공와항복하게호즉다시반복함이업슬가하느이다원슈일지련을것눈으로보며침음량구에왕내성지를밧자와남방을덕으로감화하고힘으로항복밧지아닐지니축용이만일성심으로투항호즉엇지용덕함이업스리오일지련이장하에고두사례하야감뤼영영하거늘원슈또호그모양을가련이녀여위로하야보내니라츠축용이녀의명진에잡혀감을보고바야호로투항하야련을구코저하더니외일지련이도라와원슈의말과홍스마의은덕을칭송호대축용이반신반의하야즉시쥬돌통가달떡묵홀을거느리고녀의를조차손아차를다리고명진에투항하니원슈흔연관덕하야일호의심이업거늘축용은본디우직하고교사함이적은지라원슈와홍스마의이곳치관곡함을보고감뤼비오듯하며손가락을쳐무려유향이림리하야왕과인이비록만덕지증에성장하나철정을품슈하야목석과다르오니엇지원슈의은덕을각골하야조손손이감송치아나리잇고원슈대희하야군중에막츠를정하야회하삼장과일지련을다려잇게하나라일지련이부왕을되셔막츠에드러가만히성각왕내비록조감이업스나홍장군은반드시남지아나라만일너조호흔즉누구를위하야만리종군호고원슈의용

모풍치를봄에비록심분슈려하야설만호의스를일호드러내지아나나불언중미첩잔에은근호풍정을씩엿스니이엇지지괴상종하야변복종군함이아닌가하느이다의심왕아미를투괴함은세간너조의상정이라홍장군이임의남지아닐진대나를이곳치스랑함은무슴곡절인고하야총혜호모음에조급호심스를참지못하야홍스마의눈치를알고저하야종용이막츠에나르니홍스매맛츠안젧거늘일지련이압히나아가고왕첩이장군의성활호신은덕을넘어회하에되셔견마지성을다할가하얏습더니다시성각건대종적이남조와다르고군중에너지잇슴은조고로괴하느이다라첩의부친은임의군중에되셔잇스오니첩은본국으로도라가형지의얼을함을면할가하느이다홍스매쇼왕랑의말이과하도다넛적목란은야야를되신하야만리에종군하나그르다하니업섯스니랑이엇지홀노이를구애하리오일지련이추파를홀녀홍스마를보며쇼왕첩이비록만이지방에자라례법을강론치못하얏스나남네부동석함은성인의명교호신배라조연군중에쳐호즉엇지남조와비견동석지아나리오연고로첩은씩하되목란이총회극진하나규범니측에단정호형실은부족할가하느이다홍스매이말을듯고눈을드러봄에엇지일지련의뜻을히득지못하리오조괴의종적을알고저함인줄씨드고장란왕세간에단정정일하야규범례절에어기지아니호너지몇몇치되리오혹환란을당하야박불획이호자도잇고혹지괴를조차례절을도라보지못하느자도잇느니엇지일규로의론할바리오일지련이사례하고도라오며심중에쇼왕과연내조감이흐리지아니도

다홍스매엇더흔녀진고내비록모르나그말과의괴를볼진대만드시나의평성을그릇
치든아닐지니내밍세코조차중국번화를흔변구경하리라하더라익일축융이준용고
왕과인은드름애유죄흔자는공으로속흔다하니원슈초시를득덜목동을치신즉과인
이일비지력을돕스와씨속죄할가하느이다일지련이잔왕이논불가하오니야애린국
지의로만왕을구코저오셨다가이제도로해치심은의아닐가하느니야애중용이만
왕을보시고원슈의성덕을포장하사스스와항복하게하심을가하느이다축융
이을히녀여즉시명진을떠나덜목동을향하야가니라차설나탁이축융의삼장을다리
고명진에투항함을보고대로왕내두변구원을청하야도로혀덕국을조하하니엇저
면이분을신설하리오모든만장이되왕양원슈의장략과홍장군의용맹으로이제다시
축융과일지련의우익을더하얏스니경덕지못할지라일즉항복하야전화위복함이가
할가하느이다나탁이묵묵양구에칼을싸쳐서안을치며왕내동중에십년적국이잇고
방비함이덜홍갓호니동문을닫고적회리라하니덜목동이디형이협할뿐아니라만왕
의쳐조권속과보패지물을이곳에둔고로그방비함이십분든하더라나탁이디일동
중을속히하야방비함을신척하더니홀연축융이동문을두드려청알하대나탁이대로
하야문루에올나대쳐왕눈푸르고얼골붉은오랑캐반복투성하야무의무신하니내맛
당히네머리를버혀던하의신의를저버리는자를징계하리라설과에활을다려만히
쏘아축융의명문을맞침애축융이로고충련하야일변살을싸히며칼을드러나탁을

르쳐왕불에든나뉘와속히든고기명지조석함을모르고이갓처무도하도다하고말을
쳐쳐명진으로도와원슈씩청왕이제정병오천기를빌니신즉덜목동을쳐쳐원슈의
번되하심을더르시게하리이다원슈하락흔대일지련이잔왕만왕은게궁력진하되항
복지아니하고동학을직회려하니이논밋음이잇슴이라야하는경이히치지마르쇼셔
축융이듯지아니하고오천기를거느려삼장을다리고덜목동을에위싸고삼일삼야를
치되세치지못하니원리덜목동주회일박여리오석벽이높기수십장이라석벽을인연
하야성을싸하스며성상에구리좁을죽여부어덜홍갓치견고하고외성안에다시아홉
성이잇서중중첩첩히방비하얏스니인력으로쳐철배아니라축융의성품이과급하야
분괴불갓치너러나니엇지참으리오식량과귀병을부려도라다니며치되래산반석갓
흔지라다시병병방련화를니리혀전후좌우로총화하느나탁이입의성상에풍거를쳐
쳐에노아불이범치못하고또임계방물을다리혀동중에부은대나탁이입의동중에은
구를못어흔덤물도고이지아니하니축융이홀일업서도와원슈씩고왕덜목동은던
힘지디라인력으로쳐치지못할너이다원슈침을왕대왕은물너가쉬쇼셔내맛당히다
시성각하리라하고시아에원슈홍스마를장중으로불너왕나탁이이제덜목동을직회
니엇지싸파하리오홍스매왕첩이이를성각흔지오래나실로게피업고다만흔가지방
략이잇스니나탁이비록동중적국이여산하나십년지계에불과할지니원슈이제대군
을머르르사십년을직회신즉항복을밧을가하느이다원슈대경왕이논못될배두가지

라공소로말흔죽대군을모라호디에이긋치두류치못할거시오소소로말흔죽천회를
철사귀심이일일삼취라엇지슬하를써나십년을머물니오장군은다시묘계를싱각
하야보라홍소매쇼왈상공이소소로싱각하시건대호용투한하야긋센용력이죽용과
엇더하시리잇가원쉬묵무량구왈이제랑의말과긋흔지라내만일출전하야반년을고초
하다가필경공을일우지못하고그저돌아갈소나홍소매미쇼왈이제흔가지계교박게
업스니상공의뜻에엇더하신고하니그무슴계교인고하회를보라

데십팔회

홍소매갈집허딩즈를취하고

紅司馬杖劍取頂子

양원쉬첩서를보하야남적을평하다

楊元帥報捷平南賊

각설원쉬홍소매에게계교를무른대홍소매쇼왈네적위나라오그는안히를죽여장슈
됨을구하고당나라장슈은이첩을잡아군사를먹였스니상공이첩으로써만왕의머리
를박구심이엇더하니잇고원쉬악연부답하고홍소마를숙시거늘홍소매다시쇼왈
첩이런일경문하나실로털목동과홀방락이업소오니금야삼경에변신하야칼을품고
털목동에드러가여쳐쳐하야나탁의압히금합을도적하야당나라홍선이될거시오
스불여의흔죽나탁의머리를취하야형경의싱환함이어려을가하느니소위첩으로써

吳起 張巡

紅線 荆卿

燕南 易水

만왕의머리를박곰이니이다원쉬경과에로식이잇서왈살쳐구장은오그의박형이오
쇼애로써군사를먹임은장슈의계공함이라내이제빅만군을거느려만왕일기를항복
박지못하고엇지장슈의계공함과오그의박형함을효축하리오이논량이나를겨동함
이아닌죽조룡함이로다홍량이웃고샤례왈첩이엇지상공의뜻을모르리잇고총의하
심을밋잡고희룡함이나첩이일쌍부용검을가진죽털목동중에만왕의머리취함은랑
중의물건긋치아느니엇지연남협곡의서어흔검술로역슈하풍에도라움이업슴을탄
식하리잇고원쉬첩을왈랑의검술이비록신통하나병여약질이실쉬잇슬가념려하노
라명일대군을거느려다시털목동을칠거시니운데를모아동중을굽어보며목석을싸
아성우에올나라하나라츠시나탁이만병을성머리에파슈하고독흔살과강흔쇠뢰로
어즐어이쏘거늘원쉬다시성밖그도로다가며대환포를노흐니바회긋흔털환이공중
의비발긋치며저저석벽을침애돌이바아저번개긋흔불과벽력긋흔포향은산천이상
응하고런디진동하야스면십여리에비금주슈도업더라반일을치되쳐치못하나다
시디함을과용도를통하야동중에드러가고저하더니수십장을파되동중전후좌우에
털망을중중첩첩이못어뜯기어려운지라홍소매잔왈조고로용병하느되덕국이힘으
로흔죽나는계교로고며덕국이계술로흔죽나는정도로흔죽지라나탁이이제험함을밋
고힘으로직히니도라가지혜로취함이올할가하느이다진전에위여왈대명원쉬만왕
을보고흔말이잇스니잠간성상에나서라나탁이성두에서장읍하거늘홍소매크게소

리왕네이제오대동련을일코일편고성을지회고저하니이노고기속속에놀고제비막
우에깃드림곳흔지라원쉬황명을밧조와호성지덕을베풀고살벌지심을두지아니하
는고로네머리를오늘서지보전하얏거늘망극흔은덕을모르고홍악흔모음을곳치지
아니하야대군을오래쉬고롬게하니내엇지힘으로파하리오도라가지혜로네머리를
취홀지니십분방비하야후회업게하라하고정을쳐군스를거두어도라오니라시야에
홍스매축융을종용이쟝중으로청하야왕대왕이나탁으로더부러임의린국지의손어
질뿐아니라나탁이무양흔즉대왕의복이아닐가하느니대왕은엇지나탁을취하야던
은을도보하야대공을세우고저아니하느뇨축융이구연왕과인이실로게괴적고쟝략
이업서만왕동학을세치지못하얏스오니만일쟝군이그쳐친즉부탕도해라도스양
치아니리이다홍스매왕내대왕의검술을아노니엇지털목동에드러가만왕의머리를
버혀오지아니하느뇨축융이이말을듯고이욕히싱각하더니쇼왕과인의의식현단하
야다만털목동을세쳐철방략만싱각하고는뜻하지못하얏더니이제이길로가라하느
이다홍스매쇼왕대왕이임의슈고들앗기지아니샤이제형게코저하실진대다시부탁
할말슴이잇스오니이제원쉬빅만대군을거느려일기만왕을모음으로항복밧지못하
고조직을그만히보내야그머리를취홀이본의아니라브라건대대왕은금야삼경에털
목동에드러가나탁의쟝중에나르러그머리를취하지말고다만머리우에달닌산호딩
즈를써혀오되나탁의머리우에칼흔적을머머러왔든자최를표하고오쇼셔축융이허

락하고죽시가니라원쉬홍스마를보아왕랑은축융더러엇지하코오라하얏느뇨홍스
매왕이중에게괴싱길가하느이다아이오축융이칼을집고쟝중에드러서며련식이미
덩하야허희탄식왕과인이검술을비흔지십년이라빅만군중의검극이서리곳흐나왕
리출입에무란하더니이제털목동은가위련라디망이라과인이하마함양면상의드리
업는귀신이될변하니이다홍스매그곡절을무른대축융이칼을듯코안즈며일일이말
하야왕과인이동전에나르러칼을집고성을넘으며성상에무수만병이혹좌혹립하야
잠드지아니하얏거늘과인이변하야바람이되야또구성을넘어여덟재성에나르니성
상에털망을치고쳐쳐에쇠뢰를밧엇스며그성을넘으니평디에궁장이접련하니이노
나탁의쳐쇠라쥬회륙철리오놈기수십쟝이라몸을소사궁장을넘고저하더니같이업
고무슴소리징징하거늘칼을밧추고조세보니륙철리궁장을구리쟝막으로덮혔스니
엇지늑능히드러가리오다시궁문을차자들고저하더니별안간에홍녕흔소리나며좌
우로두낫즘승이내다르니모양이비록개곳흐나키노십여척이요늘내기바람곳하야
과인과반향을싸호니과인이일즉면련을토회하며능히손으로뿔슈를싸려잡앗스나
이개는당홀길이업더니이다나탁이궁중의미복흔군스를발하야치라하기로도망하
얏스니나탁의방비흔은고금의듯지못하든배라하니원리만왕궁중에두머리삽살개
잇스니일흔은스조방이라남방에스조라하느즘승이잇고혈교란산양개잇스니스저
혈교와교합하야나은삿기는글은스조방이라그사오납기범과코씨리를잡으니홍상

문을지희더라홍스매쇼왈스불여의하니대왕은도라가쉬쇼셔명일다시의론하리라
이때홍스매축융을보내고원슈씩고왈첩이축융을몬져보낸은나탁을놀내여방비하
기를더하게호후첩이형하야머리에달닌딩즈를써혀오고저함이나이제형할지라상
공은잠간안저기드리쇼셔원슈경왕랑의당돌함이이곳도다내비록공을일우지못하
고그저도라갈지언당랑을보내지아니리라홍스매쇼왈첩이형마상공을괴망하고스
스로위디에드러가우호로총의하시느낫을저버리고아래로제몸의안위를가만야이
하리잇가스스로스랑함이잇스오니상공은방심하쇼셔원슈반신의왈축융이일즉
털목등을출입하야항비를점작하나오히려드러가지못하얏거늘이제랑은성소호중
적이라엇지고단이위디에드러가리오홍스매와첩술이라하느것이전혀신으로가고
신으로오나니축융의검술이신이부족하고로항비에저저하며출입에랑패함이라첩
이비록잔약하나검술을부려신을엇은즉그형함이바람고그도라음이물고홀지니
붓드러잡지못하며방비하야막지못할바논이에검술이라엇지그성소함을념려하리
오원슈우문왕랑이축융을몬져보내여나탁을놀내야방비함을더하게함은무슨곡절
이노홍왕동중에서나온즈승이잇다하오니엇지개를놀내리오이거시축융의추술호
곳이라지어나탁으로방비하게함은검술의신통함을외야그항복함이셔르케함이니
이다원슈바야호로홍의손을놓코천히화로의술을데여일비를권하며왈밤이셔늘하
니랑은일비를마시고형하라홍랑이웃고잔을바다상두에노호며왈첩이맛당히이잔

술이식지아니하야도라오리이다언필에쌍검을들고표연이나가니라이때홍랑이부
용검을들고바로털목동의성을느라넘을셔시야장반에월석이만공하고성상에등축
이요요하야무수만병이창검을들고돌넛스니이는축융에게놀나더욱방비함이라홍
랑이구중성을지나너성에니름애성문이닫치고좌우로푸른삼살개범고치업드렸스
니두눈의광쳐성월고치굴너장흥녕하더라홍랑이즉시변하야붉은괴운이되야문
틈으로살고치드러가바로나탁궁중에니르니나탁이바야호로저지변을격고회하
만장을모하좌우에되섯스니검극이셔리고등축이빅쥬와코더라나탁이장검을압
히놓코축하에안졌더니홀연축불이잠간붓치이며징연호갈소리머리우호로나거늘
나탁이대경하야급히장검을집어공중을치고저하더니다시괴척이업고궁문밖게호
소리벽력이느림애궁중이대경요란하야모든만장과동중만병이일시에내다라구중
성을뒤집어차즈나자최도보지못하고다만스즈방이죽은지라즈세히보니전신에갈
흔적이랑자하거늘나탁이정신이비월하야제장드려상의왕조고로즈직지변이무수
하나이곳치신동홀은듯지못하든바라이반드시사람의흔배아니오귀물의조화로다
하야의론이분분하더라이때왕원슈홍랑을보내고엇지방심하리오털목동원근을요
랑하며홍랑이거의동구를보라보리다하더니홀연장이거두치며홍랑이드러오거
늘원슈차경차희왕랑이병여약질이라중로에회환함을내아노라홍랑이쌍검을던지
고천식이막막왕첩이병예라거의동중에드러가두머리개에게쫓기인배되야성명을

鬼門關

荆政

도망하니 이다원쉬경왕살흔곳이나 업는나홍랑이아미를썩고며신음하며왈비록상
치논아니하얏스나놀남이과하더니가슴이결니는듯하오니더운술을마시고만왕의
두상에달닌딩즈를엇어야쾌활할가하느이다원쉬바야흐로무스이단여온줄알고대
회하야홍랑에게사례하니랑이웃고회중으로나탁의산호딩즈를내야노으며상우를
그르쳐왕첩이임의군령을두엇스니엇지감히허항하리잇고원쉬어히업서술을보니
오히려식지아니하얏더라홍랑이웃고인하야딩즈취하든설화를세이코와과연나
탁의방비힘은축융의하슈할배아니라첩이처음은딩즈만취하고종적을루설치말가
하얏더니다시싱각함에검술인줄알닌후나탁의두려움이더할지라짐짓칼소리를내
고문밧게나오다가두머리개를죽였스니금야나탁이눈을쓰고안져귀문을뿔살지
라북기를기드려일봉서를다가딩즈를털목동에보내죽나탁의항복함이미구할가하
느이다원쉬대회하야홍랑으로일봉서를써살에미여털목동으로쏘니라차설나탁이
경혼이미당하야모든만장을보며왈몬져단여잔자는모야무디에출기불의함이니의
심될게업거니와이번일은심상흔즈키지변이아니라궁중이잠드지아니하고과인의
방비힘이더하야밤이낮고거늘자최업시드러와괴책업시나가니이엇지형가섭정의
뤼리오더욱의심된바는임의궁중에드러와사름을상하지아니하고문외의스즈방은
사오납기범에서더하거늘삼시간에죽이되칼흔척이이긋치랑자하니이엇지괴변이
아니리오하고궁속을흔곳에모화잠드지못하게하라런명에슈문만장이보하되명진

원쉬일장글월을살에미여동중에셔러치기집어오니이다하거늘나탁이보니황룡슈
조각비단에두어줄글을씻스니왈

大明元帥大軍

대명원쉬대군을슈고하야털목동을쳐치지아니하고장중에누어일기딩즈를취하

야왔더니썰티업서도로보내니^{蠻王 洞壑}만왕은동학을더든단이직힐지어다네딩즈

취하던슈단으로써이다음다시취하야올거시잇노라

나탁이글을펴보다가산호딩즈그속에드러거늘엇지즈괴머리에달넛던것을모르리
오대경실석하야바야흐로머리를만져보니과연딩지업는지라슈각이황망하고정신
이비월하야다시씻던홍도즈를버셔보니칼흔척이완연하거늘청년벽력이썩뒤를치
며홀디에빙설을품속에품은듯모골이송연하고잔담이서늘하야손을드러머리를문
지며좌우드러문왕과인의머리엇다하노좌의왕대왕의영웅하심으로엇지이긋치경
동하느니잇고나탁이허희탄식왕과인이자지안코죽지아니하얏거늘제머리에달
닌것을칼로버허가도막연이몰낫스니엇지그머리를보전하리오모든만장이일시제
성하야위로왕위티힘을정계흔죽평안할장본이오두려움이잇슨죽깃분일이싱기느
니요마즈킵을엇지이다지근심하시리오나탁이무극량구에왕과인은드르니역턴자
는망하고슌덕자는창흔다하니과인이오대동턴을일코털목동을또허탄이일치못하
야진력하야직희여전후수십여번싸힘에흔번리힘이업스니이엇지하늘이하신배아

니 리오내 만일 구지 회고 저 혼즉 이 는 역 연 함 이 오 또 과 인 이 누 초 위 경 을 당 하 야 양 원
쉬 살 해 치 아 니 하 고 곡 진 이 성 활 하 니 이 제 항 복 지 아 니 혼 즉 이 는 은 덕 을 모 름 이 라 하 들
며 양 원 쉬 다 시 조 직 을 보 내 여 삼 척 비 슈 로 딩 조 를 취 하 든 슈 단 으 로 또 시 험 혼 즉 과 인 이
살 아 려 위 성 덕 을 모 르 는 사 름 이 되 고 죽 어 머 리 업 는 귀 신 됨 을 면 치 못 할 지 니 엇 지 한 심
치 아 니 리 오 과 인 이 맛 당 히 금 일 투 항 하 리 라 하 고 죽 시 항 번 을 성 상 에 쏘 고 만 왕 이 소 거
와 소 기 로 인 스 을 목 에 띠 고 명 진 에 니 르 러 항 복 함 을 청 혼 대 양 원 쉬 대 군 을 거 느 러 진 세
를 배 풀 고 국 법 으 로 만 왕 의 항 복 을 밋 을 시 원 쉬 호 포 금 갑 으 로 대 우 전 을 차 고 진 상 에 오
름 애 좌 편 에 좌 스 마 청 룹 장 군 소 유 경 과 우 편 에 우 스 마 빅 호 장 군 호 혼 탈 과 전 부 선 봉 퇴
련 공 과 좌 의 장 군 동 초 와 우 의 장 군 마 달 과 돌 격 장 군 손 야 차 등 일 퇴 제 장 이 동 서 로 퇴 췌
스 니 정 정 혼 기 치 는 일 광 을 무 리 오 고 연 연 혼 고 각 은 산 천 이 진 동 하 니 만 왕 이 슬 히 포 복
하 야 장 하 에 고 두 청 좌 하 니 려 목 탑 아 발 도 모 든 만 장 이 투 구 를 벗 고 장 전 에 궐 복 혼 대 원
쉬 닐 너 왈 네 려 명 을 모 르 고 변 방 을 소 호 하 니 내 성 지 를 밋 조 와 덕 으 로 슈 항 하 고 너 를 인
도 하 리 니 네 만 일 늙 은 용 밍 이 잇 거 든 또 능 히 싸 흥 흘 쇼 나 만 왕 이 고 두 왈 나 탁 이 금 일 서
지 성 존 함 은 황 상 의 려 디 조 혼 성 덕 이 오 원 슈 의 하 히 조 혼 덕 덕 이 라 나 탁 이 비 록 만 이 지
인 이 나 오 히 려 오 장 철 정 을 품 슈 하 야 하 늘 을 니 고 싸 를 뵈 아 인 류 에 참 예 혼 배 라 엇 지 덕
화 를 감 동 하 야 무 음 으 로 항 복 지 아 니 리 잇 고 나 탁 이 성 어 절 역 하 야 인 의 를 모 르 고 지 견
이 고 루 하 야 스 스 로 부 월 지 주 에 나 아 가 니 나 탁 의 머 리 려 을 싸 하 나 탁 의 지 은 죄 를 헤 고

저하나 헤지 못할가하느이다원쉬왈방금성런지우히림하샤신성문무하시고조인인
무하시니스히를덕으로다스리샤비록초목금쉬라도왕화를감복하야혜덕인정을아
니납은재업느니네런명을항거흔즉슈령을보전치못할거시오항복흔즉용디하심하
잇슬지라맛당히황상씩주달하야쳐치하리라흔대만왕이고두빅비왈나락은임의죽
은목숨이라비록하늘이크고바다이넓으나엇지이를용납함을버라리잇고하더라원
쉬즉시만왕을가두고삼군제장을거나려털목동에드러가파진악을알외며크게호군
흔후런조씩표들을녀승전함을주달할시일봉가서를또흔부침애홍랑이추연하야원
쉬씩고왈첩이금일성존함은윤쇼저의덕이라스싱지간에괴심치못할지니싱존흔쇼
식을잠잔고코저하느이다원쉬웃고히락하니라원쉬좌익장군동효를불너분부왈장
군은첩서를받들고속히왕반하야대군이원방에지체치말게하라동최령하고즉일
등정하야황성으로가니라차설이때런지침식이미감하샤양원슈의첩서를고디하시
더니동최표를받드러주달하느런저조신면에던좌하샤동효를잡전에인견하시고한
팀혹스를명하샤원슈의표를녀으라하시니그표에왈

征南都元帥臣楊昌曲 拜手稽首上書于皇帝陛下
정남도원슈신양창곡은리슈계슈상셔우황데페하하노니
南征 半年 輶畧 不敏 天兵 遠方 伏以臣 皇命
남정훈지임의반년이라도락이적고지조불민하와던병을원방에오래두류하오니
誠惶誠恐頓首頓首 臣 今月某日 蠻王哪吒 藏木洞前 受降 捷
성황성공돈슈돈슈하노이다신이금월모일에만왕나타을털목동전에슈하하교첩